



전주대, 삼성전자 반도체개발 전문가 초청 간담회

전주대학교 전력전자연구실 김은수 교수 연구팀은 지난 25일 전력전자연구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전주대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연구에 기여해 온 삼성전자(주) LSI사업부 반도체 개발 전문가인 정봉근 수석연구원과 김주훈 수석연구원이 대기업 반도체 연구 현장에서 겪은 전력전자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애로사항나 궁금증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질의응답 방식으로 선배인 전문가와 후배인 대학원생들의 공통 관심사에 집중할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전주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김은수 교수(공과대학장)는 “삼성, LG 등 국내 여러 대기업에 진출해 두각을 나타내며 기업 내부의 신뢰를 구축해 가고 있는 전력전자 연구실 출신 선배 전문가들을 연계하는 릴레이간담회를 통해 전력전자연구실 후배 대학원생들의 진로탐색과 연구의 욕 고취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 군사학과, 제복 착복·승급식 개최

우석대학교 군사학과는 28일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제복 착복 및 승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과 구성원의 단합을 도모하고, 매년 이어져 온 장교 선발시험 전원 합격의 성과를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박노준 총장과 군사학과 교수진,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11기 신입생의 제복 착복과 10기의 승급을 축하했다.

이날 11기 조예권 학생 외 41명은 학내 규율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미래 군 장교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10기 박시연 학생 외 41명이 승급했다.

박노준 총장은 “전투복을 입고 훈련하며 인내와 희생을 감내하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지만, 장교의 길은 그만큼 명예롭다는 사실을 항상 가슴에 새기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성과 소양을 겸비한 예비 장교로 성장해 대학과 학과의 명예를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산악사고 예방 등산 스틱 무상대여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산악사고 예방과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해 등산 스틱을 무상 대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제29회 지리산 바래봉 철쭉제 행사 기간, 등산객의 안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대여는 지리산 바래봉 매표소 부근(운봉읍 바래봉길 196)에 마련된 산악 안전 지킴이 부스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승현 서장은 “산행 전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산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보건소, 비대면 건강 걷기 챌린지 운영

김제시는 시민의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장려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매일 1회 ‘건강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모바일 걷기 플랫폼 ‘워크온(WalkOn)’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첫 시작인 5월은 금연을 응원하고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운영된다. 흡연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간접흡연으로 인한 가족 건강까지 위협하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인이다.

참여 방법은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김제시 커뮤니티]에 가입 → 챌린지 참여하기 → 월별 목표 걸음수를 실천하면 된다. 챌린지 성공자 중 일부를 추천해 걷기 실천 기념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걷기 챌린지는 월별 건강 주제를 반영해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 시니어 배구인, 진안에 모여 하나 되다

‘제6회 진안마이산배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대회’ 성료

진안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제6회 진안마이산배 전국 시니어실버 배구대회’를 진안 문예체육회관과 5개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사)한국시니어실버배구연맹이 주관으로 전국 각지에서 시니어실버 배구 동호인 1,300명이 참가했다.

남자부는 시니어, 실버, 황금실버 부문으로 여자부는 시니어와 프리시니어 부문으로 나뉘어 경기가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남자부에 만 70세 이상이 출전하는 ‘황금실버’ 부문을 새롭게 편성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 결과, 남자 실버부에서는 순천정원(구봉산부)과 통영실버(금척부)가, 시니어부에서는 포항시니어(마이산부)와 남해시니어(홍삼부)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황금실버부에서는 전주한옥(수선투부)이 정상에 랶다. 여자부에서는 여수동백(용담호부, 시니어부)과 군산파란(데미샘부, 프리시니어부)이 각각 우승을 거머쥐었다.

대회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진안 지역 숙박업소와 식당을 적극 이용했으며, 현장에서 운영된 농특산물 및 먹거리 부스도 큰 인기를 끌었다.

진안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진안의 맛과 멋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전춘성 군수는 “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김용태(사)한국시니어실버배구연맹 회장님과 정봉운 진안군 체육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대회를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누구나 즐기는 프로그램 다채... 안천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

‘안천면민의 날 화합 한마당’이 지난 26일 안천면 소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춘성 군수, 한창민 국회의원, 동창욱 군 의장과 군의원,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향우회원, 자매결연 기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풍물놀이로 시작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공연, 오르간 연주, 난타 공연 등 다양한 식전공연으로 흥을 돋웠다. 이어진 체육행사에서는 백화리, 노성리, 신곡리·삼락리로 구성된 3개 팀이 투호, 고리걸기 경기에 참여해 재미를 더했다. 백미는 화합행사 시간에 열린 초창가수 공연과 면민 노래자랑이었다.

노래자랑은 노래방 기계를 활용해 점수로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1~3위 참가자가 무대 위 좌석에 앉아 있다가 고득점자가 나오면 교체되는 방식으로 관람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행사장에는 빵 만들기, 딸기청 제조, 라탄 공예,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전시 공간도 마련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문화체육장에 안창호 씨, 공익장에 한안종 씨, 애향장에 한귀석 씨가 각각 면민의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로패는 직전 면장인 이정희 과장이, 감사패는 오경애 인력지원팀장, 노형준 민생경제팀 주무관, 최진은 행정복지센터 팀장이 수상했다. 또, 안천고등학교 출신 대학생과 재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전달됐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민 화합·결속 다지다... 김제 청하면민의 날 성료

김제시 청하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6일 청하초등학교에서 주민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6회 청하면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하면 면민의날 추진위원회(위원장 송형석) 주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자) 주최로 마련됐으며, 출향인사와 청하 지역 초·중학교 동문회, 주민들이 함께 모여 청하면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인 노래교실과 체조교실의 무대,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팀의 트로트·난타·마술 공연이 펼쳐져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이어 열린 청하면민 노래자랑과 축하가수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으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고조 시켰다.



장수 번암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 성료

장수군 번암면은 지난 26일 번암초등학교에서 ‘제55회 번암면민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번암면이 주최하고 번암면 발전위원회, 체육회, 자율방범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 기관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번암면 메이리합창단과 색소폰 동호회의 공연으로 화려하게 막을 열었으며 이어 열린 ‘면민의 장’ 시상식에서는 장정석씨가 애향장을 수상했다. 또한 전순화씨는 효열장을 수상했다.

이어서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배구, 고리 걸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종목을 통해 면민들이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고, 노래자랑에서는 참가자들이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를 장식했다.

/장수=곽관호 기자



| 전주매일                             |                       | www.jmaeil.com        |                  |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                       |
|----------------------------------|-----------------------|-----------------------|------------------|--------------------------------------|-----------------------|
|                                  |                       |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                  |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                       |
| 발행·편집인 조봉성                       |                       | 부회장 김승곤               |                  | 부사장 김양옥                              |                       |
| 대표전화 288-9700                    |                       | 업무국 FAX 288-9703      |                  | 편집국 FAX 288-9704                     |                       |
| 전주지사<br>010-9845-4113            | 중앙지사<br>010-9088-6874 | 남원지사<br>010-9845-4113 | 인후지사<br>246-6855 | 진안지사<br>433-3064                     | 익산지사<br>010-9642-2725 |
| 삼천지사<br>010-2333-4791            | 송천지사<br>255-2404      | 김제지사<br>010-9845-4113 | 팔봉지사<br>253-6844 | 정읍지사<br>536-3787                     | 정읍지사<br>536-3787      |
| 서신지사<br>272-9417                 | 군산지사<br>010-6789-0038 | 순창지사<br>010-9845-4113 | 익산지사<br>859-9923 | 장수지사<br>010-3682-6157                | 무주지사<br>010-2300-4253 |
| 호치지사<br>010-6645-9935            | 익산지사<br>859-9923      | 부안지사<br>010-2425-4182 | 고창지사<br>563-6999 |                                      |                       |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                       |                       |                  |                                      |                       |
|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                                      |                       |



양현고, 전북대 사범대학과 협약 체결

교육부 지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2.0 운영학교인 양현고등학교(교장 이원형)는 지난 24일 전북대학교 사범대학과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학생 맞춤형 진로·학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협력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대 사범대학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현고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예비 교사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실습 기회를 마련해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이 과정에서 교육 실습, 봉사활동, 교과 연계 활동 등 여러 형태의 학생 참여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또한 양현고가 준비 중인 국제 바칼로레아(IB)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대학의 지원과 협력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준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원형 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교육을 함께 그려갈 수 있게 돼 뜻깊다”며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통해 진로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실질적인 언어 능력과 국제적인 시야를 함께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장은성 기자



전북지방센터,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무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정호)는 지난 26일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 대표 및 실무자 80명을 대상으로 회계·홍보 등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다양한 영역의 청년 봉사단체가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사업 운영 절차, 예산집행 기준, 성과 관리 방법, 질의응답 등 실무 중심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진행됐다.‘도내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참여 예산 플랫폼 내 제안된 청년정책 중 청년 공감수를 달성하고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추진되며, 전북자치도자원봉사센터가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7일까지 도내 대학교 학생회 및 청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한 결과 총 25개 청년 단체가 최종선정됐다.

선정된 25개 청년단체의 프로그램은 5개 분야로 구성되어,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청년들의 특성을 연계하여 직접 기획 및 실행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될 계획이다. /이민호 기자

장수경찰서, 부처님오신날 대비 범죄예방활동 강화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 장수파출소는 28일, 봄 행락철 범죄·재난·사고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특별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수파출소는 연휴기간(5월 3~6일)과 부처님 오신 날(5월 5일)이 겹쳐 사찰 방문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28일부터 5월 6일까지 방범진단 및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장수파출소는 관할구역 내 전통사찰(4개소) 및 암자(11개소)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취약요소에 대해 시설물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전통사찰 및 암자 관리자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사고 대처 요령 등을 자세히 안내하기도 했다. 장수파출소는 앞으로도 사찰별 순찰차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순찰할 계획이며,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지역사회와 유기적 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수=곽관호 기자



진안군, 정신건강고위험군·가족 문화체험 실시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문민수)는 지난 25일 정신건강 고위험군 회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힐링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해양물류역사관, 독립영웅관, 시민열린갤러리, 근대생활관 등을 방문해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의 정서적 지지와 스트레스 완화, 가족 간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가족 소통 프로그램 등 다양한 힐링 활동에 참여했으며, 센터 직원들의 동행 아래 안전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체험이 이뤄졌다. /진안=우태만 기자